처음 믿을 때 했어야 할 일

(마태복음 13:41~50)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처음 믿을 때 했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처음 믿을 때 했어야 할 일'

'미란다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에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체포해서 자백을 받아낸다 해도 무효가 됩니다.

1963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에서 멕시코 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라는 남성이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시간가량의 심문과정 후에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게 되고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가 자백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들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때에 애리조나 주 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미란다는 주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만 또 유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번에는 연방대법

원에 상고를 합니다. 이때에 미란다의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3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냈는데 5:4의 표결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유는 미란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란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부터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장면은 영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란다 원칙과도 같이 우선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애초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몇 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란다 원칙과 같이 반드시 고지해야 할 신앙의 원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다 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두 비유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장 값진 대상을 얻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고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다 파는 것은 고사하고, 복음을 이용해 세상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도는 불법적 전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믿음을 신앙으로 여기며 지속한다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란다 법칙이 고지되지 않으면 그 후에 진행되는 모든 판결 또한 무죄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원칙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로 진행되는 믿음활동 또한 잘못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는 앞서 등장한 가라지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3절을 보면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천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질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

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며 빛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 되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지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결과로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삶이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살펴보았더니 항아리 뚜껑이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안에는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밭의 주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들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는 것을 막고자 가족들에게까지 비밀로 하였기에 가족들조차 미친 사람으로 여기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시세보다도 돈을 더 준다고 하니 밭주인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밭에서 나온 보화가 전부 소유자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나중에 본래 밭 주인이 따져서 보화를 나누어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물이 왜 거기에 묻혀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은행이 없었던 시대에 보물을 몰래 숨겨두었던 사람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밭의 소유자가 바뀌는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농부의 윤리관이나 당시의 시대상황 같은 것이 아닌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혼자서 알고 있던 농부는 가족들이 뭐라 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밭의 소유권을 완전히 얻고 난 뒤에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밝혔을 때에 온 가족에게 기쁨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오직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반응이 천국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44절을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한 동사를 보면 다 현재시제입니다. 이는 곧 구원이 주님의 시대로부터 지금을 지나 주님

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지금 사야하는 대상입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이라서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원칙 또한 가르쳐주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겠느냐?”라고 묻고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 상태와 같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임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게 되는 일은 날마다 나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투자 권유를 믿는 마음입니다. ‘다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천국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체감할 수 없기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권유를 하고 계시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말이 뜻하듯이 천국의 좋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을 촬영할 수 있어서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천국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지금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화와 같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좋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세상에 천국의 존재를 가르쳐주신 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또 몸의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지만, 진주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천국의 좋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면, 진주 비유는 천국에 대한 추구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추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원했지만 실제로 진주와 만난 것은 장사꾼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에 더는 다른 진주를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팔아서 천국을 가질 때에 세상적인 추구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계획하고 뜻하고 추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파할 때에 앞서 나타난 첫 번째 신앙의 원칙과 함께 이 두 번째 신앙의 원칙 또한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겠느냐?”라고 묻고 확인했다면 또 “당신이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추구해왔지만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과 추구와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어야만 합니다. 추구가 중단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소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의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유를 판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이건희 씨 같은 부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도한다면 상당한 거부감을 동반할 것입니다. 반대로 노숙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전도를 한다면 애초에 가진 것이 없기에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유는 물질적 가치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백화점에서 가격을 붙여놓고 파는 것처럼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든 노숙자든 천국에 가고 싶다면 다 팔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파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부유함이나 가난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마치 금고나 계좌처럼 생각하셨습니다. 마음 안에 들여놓은 대상을 소유로 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들여놓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내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서 남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내주었습니다. 분명히 내 소유이지만 내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땅을 담지 않은 가난한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 마음에 드는 집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담은 상태를 소유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이 마음에 담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유가 됩니다. 배우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음

에 담게 되었다면 소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내 마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 혹은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까지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면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팔아야하는 대상은 마음에 담은 세상적인 가치들입니다.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듯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살이 붙습니다. 자녀를 담고 있으면 자녀와 관계된 일들이 차례로 마음에 들어오고, 원수를 담고 있다면 또 원수와 관계된 일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지만 천국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천국과 멀어지게 되니 평강 또한 사라집니다.
자녀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늘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듯이 마음은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가 되어갑니다. 설령 사업이 흑자를 보아서 순간적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은 곧 마음속에 세속적 가치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다 팔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돈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채우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를 팔면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지 않게 되면 자녀에게 주고 있던 만큼의 마음이 회수됩니다. 또 마음에서 원수를 담지 않게 되면 원수에게 가고 있던 마음이 회수됩니다. 이렇게 회수된 마음으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회장이 1000억 불짜리 프로젝트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한편 노숙자는 따듯한 국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재벌 회장은 1000억 불짜리 프로젝트만큼의 마음을 회수해야만 하고, 노숙자는 국밥 한 그릇 만큼의 마음을 회수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회수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1000억 불짜리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얻게 될 기쁨이 천국을 얻음으로써 얻어질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노숙자라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음으로써 얻어질 기쁨이 천국을 얻을 때의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르쳐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소유를 대체 누구한테 팔라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천

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회수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재벌 회장이 천국을 갖기 위해 1000억 불짜리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을 회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없어지고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벌 회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역사해나가실 것입니다. 노숙자가 천국을 갖기 위해서 마음에서 국밥 한 그릇을 팔았다고 해서 국밥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숙자의 식사까지도 이끌어 가시며 주도해나가실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들어간 마음을 회수해서 천국을 가지려고 한다면, 배우자가 들어와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파는 것입니다. 자녀가 들어와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도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나가실 것입니다. 사업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없다면 믿음은 시작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마음 팔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무효의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면 더 이상 다른 진주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샀다면 더 이상 기쁨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대상들을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대상들이 담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만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대상에게 신앙의 원칙을 고지해주어야만 합니다. 감옥에 넣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이 집약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함을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지식을 가진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자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써 율법에 해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후에도 아라비아에서 3년간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식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가르침이 아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비유를 통해 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담았던 세상적인 가치를 팔아서 마음을 회수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을 파는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마음을 보내지 않게 된 대상들은 하나님께 팔리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십자가 생활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회수되고 공부라는 문제는 하나님께 팔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공부와 나의 관계를 조정해나가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팔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배우자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실제로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배우자와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47~48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서 교인들을 골라내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들 중에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를 골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바로 마음에서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계획하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 또한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 배우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을 갖게 되셨을 때에 누구도 신앙의 원칙에 대해 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과 비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목회와 선교에 대한 꿈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마음에 담긴 세상적인 가치를 팔아 천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교계에서 그토록 전도와 선교를 외쳐도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꿈과 비전을 외치는 동안 하나님과 천국을 가져보지 못한 목사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똑같았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고기들을 물가로 끌어내서 분류했습니다. 물가는 바닷물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물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넘으면 하늘로 들어설 수 있지만, 십자가를 넘지 못한다면 하늘에는 발끝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를 사는 장사꾼의 비유는 십자가 생활화의 양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이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나의 마음에서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팔려 나갑니다. 또 나는 자녀 앞에서 부모이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자녀가 하나님께로 팔려 나갑니다. 사업이나 학교생활이나 목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친히 움직여 가실 수도 있으며 나를 통해서 움직여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실 때에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고백하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나도 그 부활과 승천의 동선에 참여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관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곧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세상을 팔아서 마음을 회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갖게 되면 천국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추구함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지 않게 된 세상에 대해서는 나의 지정의와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선하신 뜻을 향해 일하시며 인도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기 위해 “당신은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라는 신앙의 원칙을 고지해주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일입니다. 세상 것을 대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써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에는 마음에 추구함이 있습니다. 신을 믿음으로써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충성봉사 함으로써 자녀의 앞날이 잘 되기를 꿈꾸고 있다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듯이 기독교인이라는 범주 안에는 들어있지만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추구함이 끝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고의 진주를 갖게 된 장사꾼이 마음의 흐뭇함을 느끼며 더는 진주를 찾아다니지 않

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천국의 부자로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제안함으로써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꿈과 비전은 모두 마음에서 팔아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염두에 두고 구호를 외치면서 추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서 그것들의 성취와 번영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결코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에서 고지해야 할 신앙의 원칙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할 때에 신앙은 쭉쭉 성장해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늘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쭉쭉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